

# 제15차 세계표준협력 회의



김피터종욱 | TTA 표준화본부 표준총괄부 과장  
진병문 |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 1. 머리말

지난 8월 30일부터 4일간 북경에서 '중국통신표준화 협회(CCSA)'의 주최로 '제15차 세계표준협력회의(GSC-15)'가 개최되었다. ITU 등 전세계 표준화기구 기관장 및 선진국의 전문가 130여 명이 참가하여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IPTV, 사물지능통신, 4세대 이동통신 등 20개 핵심 표준화 대상을 중심으로 그 표준화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열린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계표준협력회의(GSC)로 대변되는 표준화협의체는 표준을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세계의 주요 표준개발기구 간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표준화 방향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표준화협의체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래사회의 핵심 표준화 대상항목을 사전 확인하고, 기관 간의 표준 개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표준화협의체에서의 신규 표준 항목에 대한 논의 주도는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와 IETF, IEEE 등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표준화단체에서의 향후 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선제적 효과를 갖기도 한다.

## 2. 주요 회의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다수의 HIS(High Interest Subject, 주요관심분야)가 발표 및 논의 되었고, 그 결과 총 29개 결의안(Resolution), 20개 HIS 및 1개 성명서(Communique)를 채택했다. 그 중 2개의 신규 HIS(Cloud Computing, SON(Service Oriented Networks)), 7개의 신규결의안, 12개의 수정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개 결의안 삭제 및 9개 결의안이 재채택되었다.

또한, 동 회의 기간 중 유럽표준화기구인 ETSI와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협력분야의 확대를 목적으로 5년 만에 제3차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동 양해각서는 IMT-Advanced, 사물통신, 지능형교통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재난통신, 유헬스 분야 등에서 양 기구 간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 2.1 IMT-Advanced 후보기술 제안

9개의 GSC 회원 간 4G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결의하고, 회원 중 ITU-R에 4G 이동통신 후보기술(LTE 진화규격)을 제출한 6개 기관을 '세계적 핵심규격 제안자(GCS: Global Core Specification Proponent)'로 지정하

는 양식을 ITU에 제출키로 하였다. 이는 6개 표준화기구가 4G 이동통신 표준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써 한국의 영향력 유지에 의미가 있다.

※ 6개 기관: TTA(한국), ARIB/ITC(일본), ATIS(미국), CCSA(중국), ETSI(유럽)

## 2.2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ETSI는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강화방안을 회의 기간 중 한·중·일 3국 등과 비공식적으로 개별접촉을 통해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TTA는 국내 전문가 및 관련 업체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결정을 유보해 2010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TTS 세계대회' 기간 이전에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 2.3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개도국의 상호운용성 문제 지원을 구실로 장기적인 'ITU 마크' 등의 도입을 통해 ITU 업무 확장 및 수입증대를 꾀하는 ITU와 체계적인 사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미국, 유럽 등의 표준화기구 간의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다. 향후 지역 협력워크숍, ITU 전권회의 등에서의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국내 산업체에 미치는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 2.4 사물통신(Machine-to-Machine)

금번 제15차 GSC 회의에 신규 HIS로 채택함과 동시에 M2M Task Force를 구성하여, 회원 간의 표준협력을 강화키로 하였다. 이에, 한국에서도 TTA의 참여 및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TTA 내에 관련 표준화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2.5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업계와 정보통신업계의 협조

가 필수적인 분야임에 따라, 향후 표준 연구개발의 중복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회원 간의 업무협력 등을 포함하는 신규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TTA는 기본 요구사항/구조 등에 대한 미국 NIST 결과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한국 고유의 표준 채택 강화 및 유럽 등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하였다.

## 2.6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전 회원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여, 관련 표준화 활동 협력을 제안한 캐나다의 결의 초안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ITU-T 관련 표준화 회의(FG 클라우드 컴퓨팅 등)와 더불어 TTA 표준화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2.7. GTSC 분과회의(세계전기통신표준협력회의)

금번 GTSC 분과회의에서는 총 3개 HIS 및 3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NGN-General HIS에서는 결의내용에 M2M, Internet of Things, ITS, IPTV, 스마트 그리드 등을 위한 응용서비스 Traffic Source를 수용하는 통신망으로 고려할 것을 추가했고, Cybersecurity HIS와 관련하여 ICT Application에 Cybersecurity 협조를 강화한다는 Hyberdad/Doha Action Plan을 추가하여 결의안을 수정 채택했다.

## 2.8. GRSC 분과회의(세계전파통신표준회의)

금번 GRSC 분과회의에서는 총 3개 HIS 및 7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Wireless Access including RLANs & ad-hoc Networking HIS의 명을 기존 "Broadband Services in rural and remote area"에서 "Broadband Wireless access including RLAN and AH Networking"으로 수정해 결의안으로 채택해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된 표준화 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 2.9. IPR 분과회의(지적재산권)

이번 IPR 분과회의에서는 총 3개 결의안을 재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IPR 관련 영향력의 강화에 대비하여 TTA 내 IPR 관련 조직의 재설립을 검토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ITU/ISO/IEC의 공동 특허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을 하여 TTA의 관련 특허정책 개정이 필요하다.

### 3. 맺음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세계표준협력회의의 9개 회

원 중의 하나인 TTA는 2000년대 중반부터 'IP over Broadband Access'를 핵심표준화 항목으로 발제하여 WiBro 표준개발 주도 및 세계적 확산을 꾀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TTA는 향후 기술변화를 예측하고 추가적인 핵심표준화 항목을 발굴하여 세계표준화 무대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차기 제16차 회의는 캐나다 ISACC의 주최로 2011년 10월 31일부터 4일간 Halifax(Nova Scotia)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12~15개월의 회의 주기 및 ITU의 주요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17차 회의는 한국 TTA의 주최로 2013년 4~5월 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TTA**

## 정보통신용어해설

### 턴제 전략 게임

Turn-based Strategy, TBS, 回合戰略 [컴퓨터]

턴마다 자신의 유닛을 활용,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대전략, 노부나가의 야망, 문명, 삼국지 등이 있다.

